



네페림에 대하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페림이 있었고 그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 6:1-4)

위의 성경 구절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네페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네페림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은 노아 홍수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인도할 때 자주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페림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네페림이란 어원은 '떨어지다 (fall)'란 뜻을 지닌 기본 동사인 'naphal'(to fall, 떨어지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리스어 번역

인 70인역(LXX)은 '장부(丈夫)란 뜻의 '기간테스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인 KJV도 70인역을 따라 '거인'이란 뜻의 'giant'로 번역했다. 실제로 네피림은 등치 큰 사람과 연관된 듯하다. 이런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성격을 추측하기도 하는데 휘방꾼, 무법자, 난폭꾼,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종합하면, 네피림을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피림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과 맞물려 있다. 이는 같은 문단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네피림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란 구절이 같은 문장 안에 실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 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대한 대표적 네 가지 해석이다(Hodge Boddie, Who were the Nephilim? Answers in Depth, vol. 3, 2008, pp.53-6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해석	내 용	네 피 림	하나님의 아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여성과 번식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을 낳음	사람과 천사의 섞임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에 사로잡힌 사람들	타락한 천사 해석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봄	완전한 사람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노아에 이르는 건강한 계보이며, 네피림은 거짓 신을 찾은 타락한 셋의 후손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타락한 사람	건강한 남자가 경건치 않은 여자를 취하며, 결국 그들의 자손들(네피림)은 거짓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위의 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 또는 '타락한 천사에 잡힌 사람'로 해석한 경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를 둔 해석이다(욥 1:6, 2:1, 38:7). 그러나 사람과 천사가 사람과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셋의 후손'으로 보는 해석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지 노아의 직계 조상에 대한 기록이지 아담의 모든 후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즉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셋-에노스-게난-마할랄렐-야렛-에녹-므두셀라-라멕-노아에 이르기까지 홍수 심판에서 구원 받은 노아의 직계 조상만 언급한 것이다.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에게 형제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들 모두를 적은 것이 아니다. 이는 셋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된다.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셋에게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 아들들'을 단지 셋의 직계 후손으로만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이 해석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의 '타락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 해석은 창조-타락-홍수라는 일련의 성경 역사의 맥락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찼던 홍수 심판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눅 17:25, 26)

즉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 없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의 말씀 속에서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모습을 그려지게 한다. 결국 의인이 점점 사라지며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창 6:8).

네피림이란 단어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인 민수기 13장 33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그(갈렙)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0-33).

즉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 거민들이 장대하고 난폭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에 나온 네피림을 보며 홍수 심판 때에 네피림이 살아남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이는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창세기 기록뿐 아니라 성경의 전체 맥락과도 조화롭지 못하다. 즉 여기서의 네피림은 큰 몸을 가진 난폭한 자들의 대명사 격으로 당시 거민들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네피림이란 단어 자체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 궁금중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셋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나, 아담이 인류의 유일한 첫 조상인 것이나, 홍수가 전지구적인 격변이었던 것 등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궁금중이다. 이것 역시 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 심판, 혼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하신 심판과 성취라는 성경의 큰 틀 속에서 발생한 역사이며, 노아 시대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대중화되어 버린 지질학에서의 잘못된 사고의 전환
(Famous “Wrong Turns” in Geology) - (1)

브노아 드 마이에 *Benoit de Maillet*

잘못된 사고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잘 멈추지 않는다. 과학에서 가장 재앙적인 전환들 중 일부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을, 특히 지질학적 속도에 있어서, 먼 과거에 적용시켰을 때 일어났다. 역사에서 중요한 세 인물, 브노아 드 마이에 (Benoit de Maillet), 찰스 라이엘 (Charles Lyell), 그리고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을 생각해보자.

아이작 뉴턴이 영국에서 운동 법칙을 발견할 때 즈음, 프랑스 외교관인 브노아 드 마이에(1656-1738)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동방 지중해의 고대 항구들에 대해 관찰한 것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아르레, 그리고 다른 고대 도시들을 조사하며, 그는 그 도시들의 항구가 해수면보다 몇 미터 정도 높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동일 과정을 가정하며, 그는 그 항구들이 수 천년 전에 처음 지어진 이래로 해수면이 100년당 약 7.5 센티미터의 속도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드 마이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속도를 과거 시간에 적용하면서 암석 속에 묻혀있는 바다 조개 화석들이 있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해수면이 24억년 동안 낮아진 것이라고 계산했다.^[1]

그는 그의 이러한 생각들을 태양계의 기원을 설명하려한 데카르트의 기계론

드 마이에가 가지고 들어온 잘못된 전환은 무엇인가? 그의 모델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현재 지질학적 변화율을 알 수 없는 과거에도 문제 없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적인 “소용돌이설”과 조합시켰고, 결국 그는 기원에 대해 완전히 자연주의적 모델을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델은 증거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이고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원시 바다가 점점 마르면서 해초가 과일 나무가 되고 사람이 인어를 거쳐 물고기가 되며, 날 수 있는 물고기가 새가 되는 끝없는 지구의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진화와 원시 바다에서 생겨난 생명, 이러한 그의 믿음은 이미 제임스 허튼 보다 2세대 그리고 찰스 다윈보다 4세대나 앞서 있던 믿음이었다! 이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의 이런 공격적이고 반 성경적인 특성 때문에, 그의 주요 작품인 텔리아메드 (Telliamed)는 그가 죽은 직후까지 출판되지 않았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베일에 쌓인 상태였다.

드 마이에가 가지고 들어온 잘못된 전환은 무엇인가? 그의 모델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현재 지질학적 변화율을 알 수 없는 과거에도 문제 없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사실 그는 틀렸다. 해수면의 하강은 단지 단 기간 동안 일어났던 지역적 용기의 결과였지, 고대 항구들 전체가 엮인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불합리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드 마이에는 교회의 정설을 상대로 승리한 과학적 논리의 초대 선구자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다. 뷔퐁 (Buffon)이나 허튼 (Hutton), 라이엘 (Lyell), 다윈 (Darwin), 그리고 달림플 (G. Brent Dalrymple)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드 마이에의 공상적인 많은 요소들은 버렸지만 사실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동일하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에 이러한 접근은 과학에 있어서 잘못된 전환이었다.



Bill Hoesch
M.S. Geology

[1] 브렌트 달림플은 (Age of the Earth,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5-27) 드 마이에의 계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100년당 7.5cm의 속도로 약 1,829m의 해수면이 하강했다해도 24억년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약 1000배정도 큰 값이다! 이러한 모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달림플은 드 마이에를 “..광대한 시간에 걸쳐 느리게 작동하는 자연 과정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칭송했다.



인간은 지구에 살도록 설계되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동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하는데, 그것을 느끼는 기관이 우리의 몸 안에 있다. 전정계라고 한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직선의 선형 동작을 감지할 감지기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를 담당하는 특수한 감각 기관이 있다.

이 감각기관은 두 개가 있으며 뇌의 양쪽에 각각 위치해 있고, 그 두 개의 기관은 각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

나는 지구의 중력장과 직각 방향으로 위치해 있고, 다른 하나는 평행으로 놓여 있다. 이 감각 기관의 디자인이 경이로운 이유는 약 쌀 한 톨의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세세한 요소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아래층인데, 샌드위치의 충처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아래층은 두개골에 붙어 있고 거기서 작은 솜털같은 세포가 돌출되어 나온다.

이 섬모 세포(hair cell)가 실제로 동작 감지기인데, 세포들이 어느 한 쪽으로 구부러질 때,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 섬모 세포들은 젤과 같은 작은 액체 물질 속에 있다. 그 위에는 이석(otolith)이라는 아주 작은 돌이 덮인 매트가 있으며, 이 돌들은 정확히 석회석과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완벽한 디자인으로 어떤 종류의 동작이라도 감지하고 살짝 흔들리는 작은 동작도 감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몸을 움직이자마자 작은 돌로 덮인 상단의 매트와 두개골 사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것을 뇌에서 감지하기 때문이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가면 이 전정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초기에 몸이 혼란스러워 한다. 내이에 있는 액체가 더 이상 중력의 힘에 의해 끌어당겨지지 않아, 그 액체가 내이 표면을 고르게 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직 시각만 남게 된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 제프리 윌리엄스는 비행에서 돌아와 중력에 대한 재 적응을 마치고 전정계가 다시 복구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한다. 지구 위에서 알맞게 기능할 수 있는 감각이 인체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게 된다.

- Made in His Image, 동작의 아름다움 중에서

제 9 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9기 ITCM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경공부와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론을 배웁니다. 이런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이 전하는 기원 역사와 복음에 대해 선한 증거를 얻게 되며, 창조과학을 도구로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실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3.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4. 추천서 1부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앙고백과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 주십시오.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10명 이하로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휘성 remainin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ACT News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지난 6월 21-25일 합동신학원 신학생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해 교수님들에 이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니 만큼 첫 날부터 진지하고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특별히 지구의 나이, 타협이론 등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듣던 증거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며 확인하는 시간은 신학생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유신론적 진화론과 다중격변론 등 타협 이론을 다룰 때는 가장 진지했으며,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함께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버스에서의 나눔의 시간에 참가자들 중에 상당수는 창탐에 참석하기 이전에 타협이론이 타당할 수도 있으며, 이를 가르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음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탐 동안에 결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창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밖으로는 진화론으로, 교회 안에서는 타협 이론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를 결정하신 합동신학원, 그리고 인도하는 창조과학선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묶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드린 주일 예배 중에 이승진 교수님께서 설교 시작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왜 주님께서 합신과 창탐을 묶어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참으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일을 맡겨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합동신학원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창탐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지난 6월 4-9일 대전온누리교회(담당 목사 박태영)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버스를 가득 메우고 6일간 일정을 감격스럽게 마쳤습니다. 매일 매일 주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타협 이론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창탐을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인지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참석했던 분들이 후기 모임을 가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지난 6월 12-20일 기쁨의 동산교회(담임목사 김광이)를 주축으로 천안성은교회(김신점), 안양석수교회(김찬곤), 은혜의 동산교회(이규현)가 연합해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버스가 가득 찼습니다. 9일 동안이라는 긴 기간동안 운석구, 규화목공원,

기쁨의 동산교회



페인티드사막, 샌디에고 등도 경유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버스를 탔을 때와 달리 점점 궁금증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와 자신들이 얼마나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창람에 보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또한 모든 교역자와 교회 교사들은 반드시 이곳에 참석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LA소망장로교회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지난 6월 26-28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남가주노회에서 주최한 목회자자녀 창조과학탐사가 김선욱(John Kim) 박사의 인도로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그랜드캐년 탐사 일경 동안 성경적 기원 역사와 전지구적인 노아홍수를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목회자와 자녀들은 전문적인 자연과학적 설명을 듣고, 보며,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VBS

창조과학세미나, Youth Retreat, 및 VBS

미주순회선교단

이제만 선교사는 지난 6월 10일 미주순회선교단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타협의 거센 바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LA소망장로교회 Youth Retreat

김선욱(John Kim)박사는 지난 6월 9-11일, Elim Hot Spring에서 열린 LA 소망 장로교회(담임목사 백남준)의 청소년 수련회에서 세 차례 창조과학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노아 홍수, 공룡 등의 주제를 나눌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들으며 공감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LA UBF

지난 6월 12-14일, LA University Bible Fellowship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세 차례 인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며, 자녀들 교육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며, 함께 기

도하였습니다.

Johns Creek Korean Church Youth Retreat, GA

김선욱(John Kim)박사는 6/26-6/29에 인디애나 주에 있는 retreat center에서 열린 John's Creek Korean Church (담임목사 이승훈) 청소년 수련회에 초청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Creation Museum와 Ark Encounter도 방문하며 하나님의 창조, 노아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젊은 지구 등의 주제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는 Cherilynn Kim 전도사님께서 지난 7년동안 저를 세 번 초청하여 진화가 얼마나 성경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인지 그리고, 성경이 참으로 진리임을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 열정에 반응하는 아이들과 하나님 사랑 안에 뜨거움을 보고 가슴이 벅차며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으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과 미래의 인도자들이 곳곳에 있음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Los Feliz UMC VBS

지난 6월 22일 Bill Hoesch는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VBS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창조 vs. 진화'라는 다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rk Encounter (John's Creek Korean Church)

고생물학 수업에서 겪은 일



내가 경험한 두 번의 고생물학 수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 한다. 대학 3학년 때와 대학원 첫 학기에 전공과목으로 고생물학을 배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과목 모두 첫 시간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다. 보통 첫 수업시간에는 커리큘럼과 과제와 시험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데, 대학 3학년 때 고생물학 첫 시간에 교수님은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정색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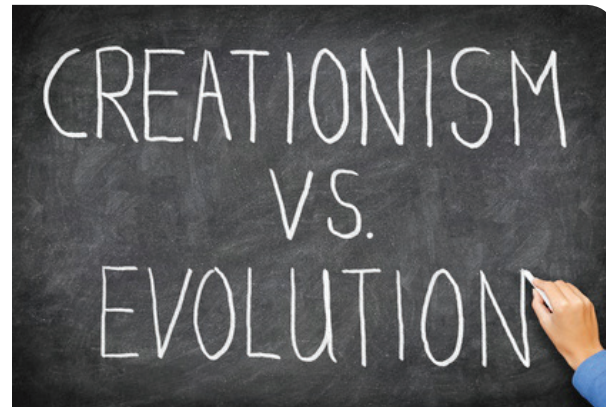
그 내용은 이렇다. 지난 학기에 모 대학에서 고생물학을 가르쳤는데, 중간고사 시험에 어떤 학생이 B4용지 앞뒤로 2장 뻑뻑하게 답안을 작성해서, 읽어보니 전부 화석이 진화의 증거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하셨다. 그 학생의 성적은 당연히 0점 처리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창조과학 같은 것은 신앙에 관련된 것이고, 이 수업은 고생물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므로, 종교적인 신념과는 상관이 없으며, 그런 접근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순간 어떤 학생인지 좀 융통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 그 학생이 정말로 화석을 가지고 반증을 한 것이라면 그 왜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평가되어야 하는지 의구스러웠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오히려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 년이 흘러 대학원 첫 학기에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었다. 교수님은 손에 작은 가죽 책을 들고 들어오셨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게 뭘지 아냐고 학생들에게 물으셨다. 가죽책을 만지작거리시며 영국 여행갔을 때, 골동품 가게에서 사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책이라고 하셨다. 나는 순간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긴장이 되었다. 대학 때의 경험상 고생물학 전공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퍼를 열어 표지 안쪽을 펴시더니, 여기에 연대기가 써있다고 하셨다. 아주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여기 약 6000년으로 지구 역사를 기록해놨어.' 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말도 안되는 이런 계산을 믿고 성경 앞에 써 놓았던 시대

가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몇 명 따라 오라고 하셨다. 나와 몇 명이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여러 화석들이었다. 삼엽충, 암모나이트, 물고기, 산호 등의 화석들을 들고 왔다.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이 화석들이 수억 년 된 것들인데, 어떻게 지구 역사가 6,000년이겠나? 이것들이 모두 수억 년동안의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데, 지구의 역사는 이것(성경책을 들 어보이며)과 같은 믿음의 영역과는 다른 것이네.”



내용은 어찌되었든, 내가 만난 두 교수님은 분명 고생물학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었다. 분명, 성경의 역사는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불편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역사는 두 가지 일수가 없으므로, 고생물학의 입장에서 한쪽만이 진실이어야 하고, 성경의 입장에서 한쪽만이 진실이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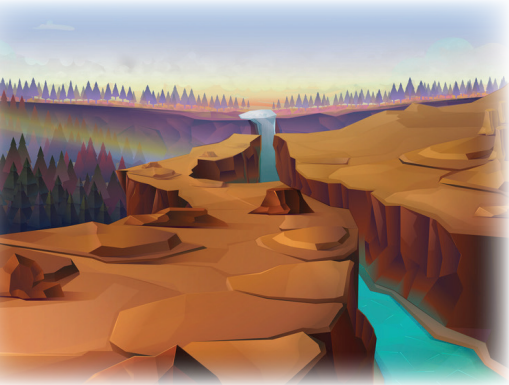
물 수업에서 한 학기 내내 무엇을 배웠을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교수님의 말씀대로 화석이 오랜 시간의 진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을까? 아마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르치셨겠지만, 나는 고생물학 수업에서 단 한 번도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 생물이 척추동물로 변해가는 화석을 배운 적이 없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외운 것은 절지동물, 자포동물, 극피동물, 연체동물 등의 종류, 생김새, 그리고 내부구조 등이었다.

한편, 우리가 배운 고생물학 책에 실려 있는 고생대 화석들은 모두 오늘날의 생물들처럼 문(phyla), 강(orders)과 같이 큰 분류체계 아래, 과(family), 속(genus), 종(species)의 하위 분류체계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모양과 크기는 다양했지만, 삼엽충은 계속 삼엽충이었고, 완족류(족수로 먹이를 찾는 조개류)는 계속 완족류였으며, 산호는 계속 산호였다.

최초로 종 분류체계를 확립한 린네(1707~1778)는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기에 이러한 분류작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재 살아있는 생물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화석 생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종류로서 분류할 수 있다. 그 구분이 애매해서 종과 종 사이 어딘가에 분류해야 하는 화석은 없다. 화석에 진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노휘성
과학교사



진화론의 시작이 증거가 앞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전제임을 보게 되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류범주 <행복사랑교회>

처음에 단순히 저의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좀 풀어보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은 순간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제게 자꾸 말씀해주시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깨달아지는 것들에 뭔가 기뻐지기도 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 조미진사모

모든 성경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라면 모든 지질학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노아의 홍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서종대 <성지교회>



목사로서 성경을 잘 알고 수년간 주신은 예로 말미암아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이 내 생각, 시각, 패러다임이 뿌리깊게 진화론에 물들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 곽재용 <트랜스 교회>

어릴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당연히 내가 창조와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내 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화론이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 무명



공향을 떠나기 전 신앙이 천주교와 무교인 한 부부가 말하기를 '남편이 목사인데 성경을 잘 알지?' 하는 질문을 받았 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 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 버스를 타고 나서야...나는 왜 선교사님처럼 성경을 진리다, 성경은 사실이다, 외치지 못 했을까? 회개했습니다. - 이지은사모 <높은 뜻 푸른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홍수 이후와 빙하기를 거친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돌아 갑니다. - 남근형 <푸른사랑교회>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ACT Schedule

7/30	창조과학세미나 (Agap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VA), 김선욱
7/30	창조과학세미나 (LA사랑의교회 중등부), 노휘성
8/1-5	창조과학탐사 (더사랑교회), 이재만
8/20	창조과학세미나 (굿타임교회, LA), 노휘성
8/24-30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김낙경
9/12-15	창조과학탐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이재만
9/18-2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오픈), 이재만
9/23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9/25-28	창조과학탐사 (앵커리지온누리교회), 이재만
10/12-1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23-27	창조과학탐사 (대한예수교합동 수원노회), 이재만
10/28 - 11/27	한국, 대만, 홍콩 세미나, 이재만
11/20-22	창조과학탐사 (오렌지한인교회 EM), Bill Hoesch
12/10	창조과학세미나 (베델한인교회 중고등부), 노휘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